



서산한서 로타리클럽, 제25·26대 회장단 이취임식

6월 1일,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봉사현장

26대 취임 이경노 회장

“더욱 단합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 로타리 클럽은 지난 6월 1일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봉사현장에서 제25·26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한주희 총재, 한옥희 서산지역대표, 전용철 사무총장,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중 국회의원, 김병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용국·이연희 충남도의회 의원, 강문수·안원기·문수기·최동묵·조동식·이정수 시의원, 이경구 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각 사 회단체장과 서산지역 각 클럽 회장 및 회원, 자매클럽인 3740지구 새충주 로타리클럽 김대성 회장과 회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도현 이임회장에 이어 제 26대 이경노 회장이 취임했다.

이임하는 한도현 회장은 오늘 영예롭게 취임하는 제26대 여명 이경노 회장님께서는 늘 앞장서 클럽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서산한서 로타리 클럽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봉사 활동은 물론 국내에서 더 좋은 봉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으

며, 회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여명 회장님께 드릴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모든 열정을 여명 회장님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이경노 취임회장은 “오늘 제25·26대 서산한서 로타리클럽 회장단 이취임식을 봉사활동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저와 새로운 임원들은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전통과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회장·총무 패치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과 지구대회 등을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로타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2024-25년도 우리 서산한서 로타리 클럽이 진행하고자 하는 중점 사업으로 ▲해외 자매클럽을 발굴해 국제교류와 로타리의 이상 실현 ▲청소년위원회 설치로 로타리 교우의 범위를 넓히고 ▲신

입회원을 입회시켜 회원을 늘리고, PHF, RFMS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 ▲서산한서 로타리 클럽이 더욱 단합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힘써 말했다.

이경노 취임회장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하고 “먼 길 달려 오신 자매클럽 3740지구 새충주 로타리 클럽의 회장님 이하 회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내외빈 모든분들께 감사한다”고 했다.

한주희 총재는 “2024-25년도 스테파니A. 열칙 RI회장께서는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라는 테마를 발표하시며 우선 “예” 라고 말하고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러한 긍정 마인드는 봉사하는 로타리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혜자의 삶 또한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로타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회원 상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실천하며 공정성을 추구해 나아가는 단체로 회원간 분쟁이 생겨도 상대를 이기려고도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나와는

다른 점을 인정해 보려고 노력해 주는 것이 다 함께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서 서산한서 로타리의 영역을 확대하고 클럽의 실전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기모임의 참석이 전제 되어야 하며, 정기모임 참석율 60% 이상을 실현해 주기 바라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참석할 수 밖에 없는 매력적인 정기모임을 다양하게 디자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24-25년도 한서 로타리클럽 임원은 ▲회장 이경노 ▲총무 임창진 ▲트레이너 정종환 ▲재무 김종구 ▲사찰 한도현, 김종국 ▲위원회 정승욱, 김정훈, 김주태, 이수현, 가금원 회원이 각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입회원은 서산시에서 터전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희돈 건축사가 입회 함께하게 됐다.

이날 이취임식이 열린 장소와 인접한 가정(서산시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어려운 이웃)에 서산한서 로타리클럽은 5월 31~6월 2일까지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의 봉사활동으로 땀방울을 흘렸다.

한편 한주희 총재도 도배 봉사에 참여 회원 가족과 함께 땀방울을 흘렸다.

/가금원 기자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전국 공공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 강화 교육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지역의료 강화 해법 제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초청받아 전국 공공보건의료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지역의료 강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와 현황 ▲지역의료 격차 원인 ▲지역의료가 나아갈 방향 등의 내용으로 특강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산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우수 의료인력 확충, 심뇌혈관센터 개소, 검진센터 확충 운

영, 다양한 공공사업 수행 등 노력을 기울이며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김영완 원장은 “앞으로 서산의료원은 세부 전문과 활성화, 특성화와 육성, 닥터헬기 1등 탈출 등의 노력으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의료원은 최근 심뇌혈관센터 개소,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역의료 인프라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에 신관 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가금원 기자

홍성군, 물놀이와 해상체험 6월 개장 본격화

홍성군이 대표 관광브랜드 육성을 위해 조성한 남당항 해양분수공원과 놀굴리 해상파크가 개장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남당항 일원에 조성된 해양분수 공원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혹하는 시원한 물놀이 명소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과 주말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주간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만끽할 수 있고 야간에는 화려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조명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올해 조성된 놀굴리 해상파크는 천수만 바다 위에 떠있는 신개념 인공 구조물로,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시시각각 높 낮이가 변화하는 모습이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방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뷰 또한 이

색적이며, 해상파크에서 바라보는 천수만의 석양 풍경은 환상적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장한 홍성 스카이다이와 남당항 네트워크드벤처 등 주변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홍성 스카이다이, 놀굴리 해상파크 등 최근 조성된 대표 관광시설들이 올 여름 홍성군의 야심작 ‘해양관광 투어’의 굵직한 코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군에서는 편리한 관광을 위해 홍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시간, 입장료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성진 기자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 만한 곳 선정



충부권 최대 수국정원인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6월의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다.

5일 공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정월별곡’이라는 테마로 6월 추천 가볼 만한 곳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정원,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등 전국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사 측은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정 하천인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 3000㎡의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썬머, 핑크아나벨 등 22종, 1만 6000본에 달하는 수국이 매년 6월이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는 수국 절정기인 오는 14일부터 16

일까지 3일 동안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축제 기간 13만명이 다녀가면서 여름철 대표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유구벽화거리가 조성돼 있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립공주박물관 등 주변 둘러볼 만한 곳도 안내했다.

최원철 시장은 “충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거대한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초여름 대표 여행지로 선정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축제도 개최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연근 기자

서산시의회 전)환경특위,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 법원 공판 방청 및 규탄 집회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 법원 공판 방청 및 규탄 집회 모습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전)절전리 부속도 및 현대오일뱅크 폐물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전)환경특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의 법원 공판을 방청하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2023년 8월 11일 의정부지법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물 및 폐물류 함유 폐수 수십만 톤을 방지시설 유입 없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과 현대케미칼 공장 으로 배출하고,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폐수 130만 톤을 증발시켜 배출한 사실을 밝혀내어 전현직 임원 7명과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전환경특위 위원인 한석화, 최동묵,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의원 등 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HD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함께 문안을 낭독한 후 공판을 방청했다.

한석화 전)환경특위 위원장은 “환경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현대오일뱅크 폐물사건의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오늘 공판 방청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서산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환경특위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현대오일뱅크 폐물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절전리 부속도 및 현대오일뱅크 폐물 관련 환경오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이 의결되어 1년 간 활동해왔다.

활동내역으로는 2023년 3월 21일, 환경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석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동묵 의원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했다.

2023년 3월 27일, 대죽공공폐수 처리시설과 현대OCI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폐물 사건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폐수처리량, 수질 오염물질, 수질 정화과정, 수질 상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4월 10일,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폐물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4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 대죽 폐수처리장 소장,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폐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7월 10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8월 22일,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인 폐물